



뉴저지교협은 2일 오후 3시 뉴저지연합교회 주차장에서 '마당 구국기도회 및 현장 예배 방역용품 나눔 사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56개의 교회에게 비접촉 측정계 등 현장 예배 방역 용품을 전달했다.

뉴저지교협, 마당 구국 기도회·현장 예배 56개 교회에 현장 예배 방역 용품 전달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은 29일 오후 3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 주차장에서 '마당 구국 기도회 및 현장 예배 방역용품 나눔 사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56개의 교회에게 비접촉 측정계 등 현장 예배 방역 용품을 전달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최준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가 인도했다.

박종윤 목사(인도, 우리사랑의 교회), 이준규 목사(수정교회), 박영미 집사(뉴저지연합교회)가 찬양을, 평신도 부회장 배광수 장로(뉴저지연합교회)가 기도를, 사무회계 김근출 장로(오늘의목양교회)가 성경봉독을, 뉴저지교협 제23회기 회장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가 말씀 선포를 담당했다.

양춘길 목사는 다니엘 9장 17~19절을 본문으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마당 기도회는 이준규 목사(인도), 박종윤 목사, 박영미 집사의 찬양에 이어, 기록 회계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가 인도했다.

송 목사는 뜨겁고 간절하게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송 목사의 인도에 따라, 이의철 목사(뉴저지교협 제29회기 회장, 은혜제일교회)가 "회개와 부흥을 위하여", 윤명호 목사(뉴저지교협 제31회기 회장, 뉴저지동산교회)가 "미국과 뉴저지 한인교회를 위하여", 흥인석 목사(뉴저지교협 제32회기 회장, 하늘문교회)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기도했다.

뉴저지교협 제28회기 회장 이병준 목사(한길교회)의 축도로 예배와 기도회를 마친 후에, 현장 예배 방역 용품 나눔 사역이 시작되었다.

3부 현장 예배 방역 용품 나눔 사역은 뉴저지 교협 총무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의 사회



설교자 양춘길 목사(왼쪽), 뉴저지교협 회장 장동신 목사(오른쪽)

로 진행되었다. 뉴저지교협 회장 장동신 목사(오늘의목양교회)가 인사말을 했다. 대부분 대상은 뉴저지교협 회원교회들과 한인밀집타운 관공서(경찰서와 소방서 등), 병원 및 한인사역단체들이었다. 단체는 패밀리인터치, 네이버 플러스, 밀알선교단, 뉴욕상조회, 뉴저지상조회, 상록회, 잉글우드 병원, 헐리네임 병원, KCCC, 뉴저지한인회 등이다.

3부 현장 예배 방역 용품 나눔 사역은 회장 장동신 목사의 인사말, 뉴저지연합교회에 대한 감사패 전달, 회원교회 대표 박인갑 목사(새방주교회)에게 현장 예배 방역 용품 전달, 박인갑 목사의 나눔 소감 발표, 방역 용품 분배 순으로 진행됐다.

드라이브인으로 예배와 기도회에 참가했던 교회 대표들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현장 예배 방역 용품을 신고, 뉴저지연합교회의 주차장을 떠났다.

뉴저지교협은 현장 예배 방역

용품이 필요한 교회들의 신청을 미리 받았었다. 준비한 75세트 중에서 신청 교회들에 배부하고 남는 용품은 지역 내의 관공서들을 비롯한 필요한 기관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다.

마감일까지 47교회가 신청을 했었다. 그런데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은 9교회가 현장에 나타나 용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뉴저지교협은 준비한 75세트 중에서 마감일까지 신청한 47세트를 신청 교회에 전달하고, 나머지 28세트는 지역내 관공서 등에 전달하기로 하고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었다.

신청을 하지 않은 9교회가 가져간 수량만큼 뉴저지교협은 추가로 물품을 구입해야 하게 되었다. 뉴저지교협에 3,150 달러(350 달러X9)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9교회가 마감일 전에 신청을 했더라면, 지역내 관공서 등에 전달할 수량을 조절하면 될 일 이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